

평화통일
주일설교

적의(敵意)를 소멸하는 십자가

<누가복음 6:27>



이 상 훈 목 사 (한국 유학 중)

올해에 들어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둘러싼 상황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에는 한국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에 맞추어 북한 대표단이 방한하였고, 4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6월 12일에는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전쟁상태를 종결 짓는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가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휴전> 상태에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화협정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일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임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북분단과 관련하여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1980년대 후반) 저는 일본에서 민간계 민족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었는데, 어느날 저희 학년이 어느 단체가 주최한 기념식에 학교를 대표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식에 참가한 어른들이 돌연 주먹을 치켜드는가 싶더니 “북괴를 타도하라!”고 외치며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재일 코리안 사이에 있는 38선의 존재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지만, 그렇게 노골적인 모습으로 <적의> (敵意)가 들어난 현장에서 있었던 적이 그때까지 없었으므로, 중학생인 저는 대단히 놀랐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재일 코리안 사회에 있는 38 선이라는 <적의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똑똑히 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KCCJ)가 총회 차원에서 한반도에 관한 평화통일 선교를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가고 나서 였는데, 이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러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재일 코리안 사회 내에 있는 38선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KCCJ가 평화통일에 관해 해 온 역할이 충분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역할이 작은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KCCJ는 1981년에 <민족통일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평화통일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88년에 <민족통일에 관한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선언>을 발표하고 거기에 의거해 평화

통일 선교를 구체적인 형태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8월 15일 전 주일을 <평화통일주일>로 지켜 왔습니다. 또한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회의>를 8회(1990~2002년)에 걸쳐 일본에서 개최하여 남북 기독교계 대표가 직접 만나 평화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왔습니다.

총회선언에서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에 서서 재일 코리안 간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KCCJ의 선교 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화해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적의라는 중간에 막힌 담”이 헐려 평화와 화해가 실현됐다고 선언하는 에베소서 2장 14~16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예수의 말씀입니다(예를 들어 누가 9:23). 그렇다면, 자기의 십자가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다양한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누가 6:27)라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속에 있는 적의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의를 소멸시킨다는 것이 분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 속에 있는 증오를 소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는 불의가 만연하는 상황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증오는 파괴 만을 목표로 한 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의 증오란 예를 들어 반공주의를 내걸어 대화를 거절해버리는 태도나 배외주의적인 언행 등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반공주의라는 증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사회에는 매스 미디어 등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의 및 증오가 충만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러 보면서, 적의를 소멸시키는 각각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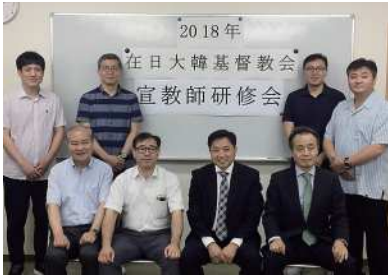
宣教110周年記念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敎會110周年準備委員會は、大会を記念して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いたします。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記念大会会場で販売します。



2018년도 선교사연수회 개최

4명의 선교사가 재일동포역사 등 배워



한국의 선교협약교단에 있어서 과송받아 본 총회에 가입해서 임지에 부임하게 되는 선교사 교육을 위한 선교사 연수회가 지난 7월9일~19일, 재일 총회 신학교에서 4명이 참석하여 합숙으로 진행되었다.

교육과목으로는 재일 대한기독교회 신학과 선교 이념, 역사, 헌법과 규칙, 재일동포 역사, 일본기독교회의 신학과 교회사, 에큐메니칼 신학, 예식, 예전, 그리고 총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연금, 총회 행정등의 안내를 받고 일본기독교단, 재일본한국YMCA,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NCCJ), RAIK, 마이니리티선교센터등을 방문하였다.

금번 연수회에 참가한 선교사는 강우열목사(대신, 나라교회), 장승권목사(감리, 동경중앙교회), 김성언목사(기장, 시모노세키교회), 김신우목사(오사카교회)이며 이들은 오는 2018년 9월 17일에 신학교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가입 시취에 응해야 한다.

프로그램 중에 관동지방회 각 교회를 방문하여 따뜻한 환영과 접대를 받으며 각 교회의 역사와 현상, 선교적 과제를 나누기도 하였다.

서남지방회

신치선목사 위임식 거행

후쿠오카중앙교회에 새로 부임



2018년7월1일 주일오후, 서남지방회에서 신치선목사를 후쿠오카중앙교회에 목회를 위임하는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서남지방회 각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위임식은 임시당회장 최영신목사의 사회와 서남지방회장 이해란 목사의 사식으로, 설교는 박미웅목사가 <말씀에 전력을!> (디모데후서4:1~5)이라는 제목의 힘있는 설교를 하였다. 위임목사의 서약, 기도, 선포가 행해진 후 권면, 축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금번 후쿠오카중앙교회에 위임 받은 신치선목사는 1967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2007년에 일본선교사를 파견 받아 10년 동안 뱃푸(別府) 교회를 섬겨왔다.

가족은 부인 유진영목사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浜松教会

박정은장로 장립식 거행

3명의 권사 취임식도 동시에



2018년7월8일 하마마츠(浜松) 교회에서는 박정은장로의 장립식 및 박성자, 김경애, 박남이 권사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권운일 담임목사의 사회와 중부지방회장 최화식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병옥목사가 <복음을 위하는 자> (행16:9-15)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금번 하마마츠교회에 장립받은 박정은장로는 1957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994년에 박무수목사로 부터 세례를 받고나서 집사 및 안수집사로 하마마츠교회를 섬겨왔다.

西部地方會

「말씀과 찬양의 모임」 개최

「자,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님께」 주제로

2018년6월17일 주일 오후 고베동부교회에서 서부지방회 전도집회 「말씀과 찬양의 모임」이 “자,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님께 ♪”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강사로 동지사대학 신학부 교수인 세키야 나오토 목사를 모시고 예배와 찬미집회,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창조의 능력에 말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키야 나오토 목사에 의한 은혜롭고 풍성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 중에 세키야 목사는 목사와 교수가 될 때까지의 다양한 인생의 과정을 간증했고, 모든 경험들이 현재의 목회와 교육을 위해서 연결되었다고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강조했다.

성경은 “주님은 토기장이” 이신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실패 하더라도 회개하면 재창조하시는 긍휼과 권위를 가지시는 “창조주” 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일을 맡겨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부에서는 세키야목사에 의한 “찬양의 모임”으로 리빙프레이즈와 아메리칸 고스펠을 함께 찬미하는 시간이었다.

(보고 : 전도부장 김승희)



東京教会

민사소송, 일심 원고 승소

김해규목사의 면직 처분 유효 판단

동경교회 신도들이 동경교회를 상대로, 김해규씨가 동경교회 대표의원(담임목사)의 직위가 아닌 것의 확인과 대표의원 퇴임의 변경 등기 수속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2018년7월19일, 동경지방법판소는 원고측의 고소를 인정하여, 원고측이 승소 했다.

동경지방법판소는 총회가 김해규씨에게 내린 면직처분은 김해규씨가 헌법위원회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위법으로 시무장로 2명을 파면하였으며, 총회에서의 권고를 무시하고 시정과 사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그 수속도 정당하였다고 김해규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유효하다 하였다.

또한 최초, 정직 처분 후에 가진 2015년1월18일 공동의회는 권한이 없는 김해규씨가 열었던 것이며, 총회가 총회 탈퇴 결의를 총회 기관지(복음신문)에 공고 게재를 불허한 것도 정당하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김해규씨의 면직 처분은 동경교회의 총회 탈퇴를 제지하는 목적이었으며,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고 : 동경교회 장여명집사)



서부여성회

제30회 수양회 개최
한국 울산 자선 공연 찬양 여행가져

서부지방 교회여성 연합회 제30회 수양회는 한국 울산 자선공연 찬양의 여행으로 6월21일~23일에 있었다. 양영우목사의 인솔하에 5교회 20명이 참석하였다.

21일은 여전도회 임원과 교류를 통해서 일본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22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흥교회의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여,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23일은 금번 수양회의 하이라이트로 울산노회 여전도회 주최의 <제33회 세계선교회를 위한 찬양페스티벌>이 울산제일교회에서 개최되어 <주님 다시 올 때까지>와 <God bless you>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며 울산노회와 여전도회의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찬양의 여행을 은혜롭게 마칠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한 귀한 수양회였다.

(보고 : 윤풍자)



京都南部教会

예술분 명예장로 소천
KCCJ 첫 여성 장로서 많은 봉사

지난 2018년7월11일, 교토남부교회 예술분 명예장로가 소천하여 전야식과 고별식이 허백기목사의 사식으로 거행되었다 (향년 96세).

故 예술분장로는 192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934년 일본에 온 이후 험난한 재일의 나그네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살아

왔던 한 평생이었다.

제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 여성장로 안수를 받게 됨과 함께 처음으로 1980년에 여성장로로 안수를 받아 교토남부교회를 섬겨왔다. 또한 전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관서지방회 및 총회를 위하여 많은 활약을 하였다.

사카이(堺)교회 김필순목사는 장녀이며, 교토남부교회 김주명장로는 차남이다.

전국 교회 기도 달력

* 선교위원회는 금년 매주일에 전국의 각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기도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합시다. (제일대한기독교교회 선교위원회)

8월에 전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 5일 : 大阪南部教会(朴鴻淳牧師)、浪速教会(金鐘賢牧師)
- 12일 : KCCJ宣教110周年大会(総会長 金鐘賢牧師・総幹事 金柄鎬牧師)、大阪西成教会(金武士 牧師)
- 19일 : 豊中第一復興教会(朴栄子牧師)、高槻伝道所会(金宥良伝道師)
- 26일 : 永和教会、枚岡教会(崔亨喆牧師)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公 告

このたび、下記のとおり、宗教法人「在日大韓基督教会」の境内建物を新築しましたので、宗教法人法第23条の規定及び「在日大韓基督教会」規則により下記のとおり公告します。 2018年7月17日火曜日

信徒その他利害関係人各位

在日大韓基督教会代表役員 金鐘賢 記

1 理由

2016年7月に在日大韓基督教会所有の岐阜教会礼拝堂建物(所在地:岐阜県岐阜市長良海用町1丁目27番地)が地震によって破損し、礼拝活動ができなくなったので、今後の礼拝活動を続けるために、境内に岐阜教会礼拝堂を新築しました。

2 建築場所、構造、種類、床面積

在日大韓基督教会所有の岐阜教会駐車場(境内所在地:岐阜県岐阜市長良海用町1丁目15番地1号、敷地面積325.87㎡)に在日大韓基督教会所有の岐阜教会礼拝堂を新築。建物は、木造2階建て(1階:礼拝堂、2階:牧師館)、総床面積(230.27㎡)。

3 起工及び竣工、入堂式

2017年10月15日起工、2018年4月30日竣工。

入堂式は、2018年9月1日午前11時予定

《訂正》

第775号東京教会長老治理判決の公告で、名前の漢字が間違っていましたので、お詫びして訂正いたします。

李秀男⇒李秀夫

《お知らせ》

2018年8月20日~24日、夏季休業のため総会事務局はお休みします。

大阪第一民宿[OSAKA STAY]

代表:鄭洪権長老/安姫子勸士(大阪教会)

大阪市生野区中川西3-9-6(大阪教会近く)

Tel 06-6777-7033/携帯090-8538-4433

Kakao ID : nttip0033

Email:osakastay@dune.ocn.ne.jp

http://www.osaka-stay.net

大阪市指令許可書11549号

2018년 재일대한기독교회·일본기독교단 평화의 메시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5:9)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김 중 현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 이시바시히데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세상에 존속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실현하는” 사명자로서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자각을 가지고, 우리들은 쓰임받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속에서 국가의 정치적 도가 성경이 제시하는 평화적인 도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경종의 소리를 높여야만 합니다.

〈공모죄에 대하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사야 2장 4절)

중의원, 참의원의 본회의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표명되고 있는 가운데, 심의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고, 조직적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한(2017년 6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동 개정에서 신설된 “테러 등 준비죄”의 실질적인 내용은, 과거에 세 번 폐안된 “공모죄”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이 개정 자체가 헌법 제31조에서 말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자가 극히 애매하고, 일반인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개정으로 인해, 이른바 “감시사회” 체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려 외에 개인의 마음의 자유 침해가 현실화 되는 것, 그리고 시민의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들은 일본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며 세계 각국의 상호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현해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대처를 계속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大嘗祭(다이조우사이)에 대하여〉

오는 2019년 4월에는 현재 천황이 퇴위하고, 5월에 새로운 천황이 즉위합니다. 우리들은, 천황의 세대 교체가 수반되는 즉위식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상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반대를 표명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고백에 따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출애굽기 20:3) 라는 말씀에 따라, 천황을 신격화하는 듯한 제사의식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제를 국가에 의한 행위로서 실시한다는 것은, 일본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신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예전에 거행된 대상제에는, 국비가 지출되고 삼권의 기관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국가 행사와 황실제사 의식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헌법개정에 대하여〉

과거 4만세기의 일본의 정치적 흐름을 돌이켜 볼 때, 우리들

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헌법 제9조를 비롯하여 개헌의 움직임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은 “교육칙어(教育勅語)”의 학교 교육 교재 채용을 용인할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전에 국민의 마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는 탄압장치로써 기능한 치안유지법을 혹사하는 “테러 등 준비죄”(공모죄) 법안을 성립시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움직임을 통해 기본적 인권과 평화주의의 이념에 서서 현행 헌법에 지지를 얻어 온 이 일본은 지금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평화주의 그리고 국가권력의 폭주를 막는 입헌주의를 붕괴시켜 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인식하고, 강한 위기 의식을 느낌과 동시에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근절을 향하여〉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주민은 20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행자만 헤아려도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연간 2천만 명에 가깝고, 반대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는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그리고 세계가 다양한 국면에서 외부와의 교류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재류외국인, 특히 아시아인을 상대로 편견에 가득 찬 헤이트 스피치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년전에 “본국 외국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되긴 하였지만, 법률 자체가 아무런 벌칙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그 틈을 찌르기라도 하듯이 헤이트 스피치가 교묘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그러한 인간의 존엄, 영적인 부분에 깊이 상처를 주는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가 일본,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근절되도록, 우리들은 기도와 함께 적절한 행동을 취해 가야 합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은, 이상과 같은 신앙적 입장을 공유하면서 1984년 2월에 화해와 협력의 선교협약을 체결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전도와 세계평화를 위해서로 협력하며 섬겨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소망하며 추구해 나갈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세계의 평화,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

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ク・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プ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神田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